

문무왕의 불교신앙과 문화유산 26 장안(長安)의 불교

### 장안에는 구마라집·현장의 숨결이



구마라집이 머물렀던 초당사.

당나라 시대 한국 구법승들은 중국을 방문하면 장안(長安; 현재의 서안)을 거쳤다. 장안은 고대 중국 13개 왕조의 수도로서, 정치·경제·문화의 중심지일 뿐만 아니라 불교포교의 중심지였다. 또한 실크로드의 시발점이자 동·서 문화 교류의 장이었다. 수·당시대에 중국에서 활동한 한국의 구법승들은 주로 장안을 무대로 활동했다. 장안의 도성에서 활동한 경우도 많았지만 장안 남쪽의 종남산(終南山)과도 인연이 깊다.

장안지역은 중국에 불교가 전래 된 초기부터 중요한 지역이다. 동아시아 불교의 중심지답게 수많은 유적이 있지만, 특히 이 지역의 역사를 생생히 전하는 초당사(草堂寺)와 자은사(慈恩寺)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바로 동아시아 불교에 빼놓을 수 없는 구마라집과 현장이 머문 곳이기 때문이다.

#### 중국 장안은 동아시아 불교 중심 구마라집-초당사, 현장-자은사 인도불교를 동아시아 불교로 바꾼 곳

구마라집(鳩摩羅什; 344~413)의 흔적이 남아 있는 곳은 초당사(草堂寺)인데, 이곳은 서안(西安)에서 서남쪽으로 약 25km 떨어진 곳에 위치한다. 종남산에서 보면 지봉(支峯)인 규봉산에서 서안 방향으로 들어서는 초입의 평야에 위치한다. 정업사와 풍덕사가 있는 종남산 풍곡구(豐峪口)에서 서쪽 방향이다.

초당사에는 구마라집의 허로 만들어 졌다는 사리탑이 경내에 있다. 절 후원에 팔각형으로 만들어진 사리탑은 전체모습이 수미산의 모습을 닮았으며, 높이는 2.5m이다. 하단부에는 연화문양에 각종 천인(天人)을 조각했다. 본체부분은 팔각으로 창틀의 모양을 본뒀다. 상단부는 부도의 상륜인(相輪印)처럼 꾸며 놓았다. 돌

은 서역산(신강성)으로 반질거리는 검은 빛깔의 대리석이다. 세워진 연대는 구마라집의 입적 직후인 5세기 후반이다. 중국인이 아니었으면서 가장 중국인들의 마음을 울리는 언어로 경전을 번역한 구마라집은 중국을 넘어 동아시아에 불교를 이해하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한 인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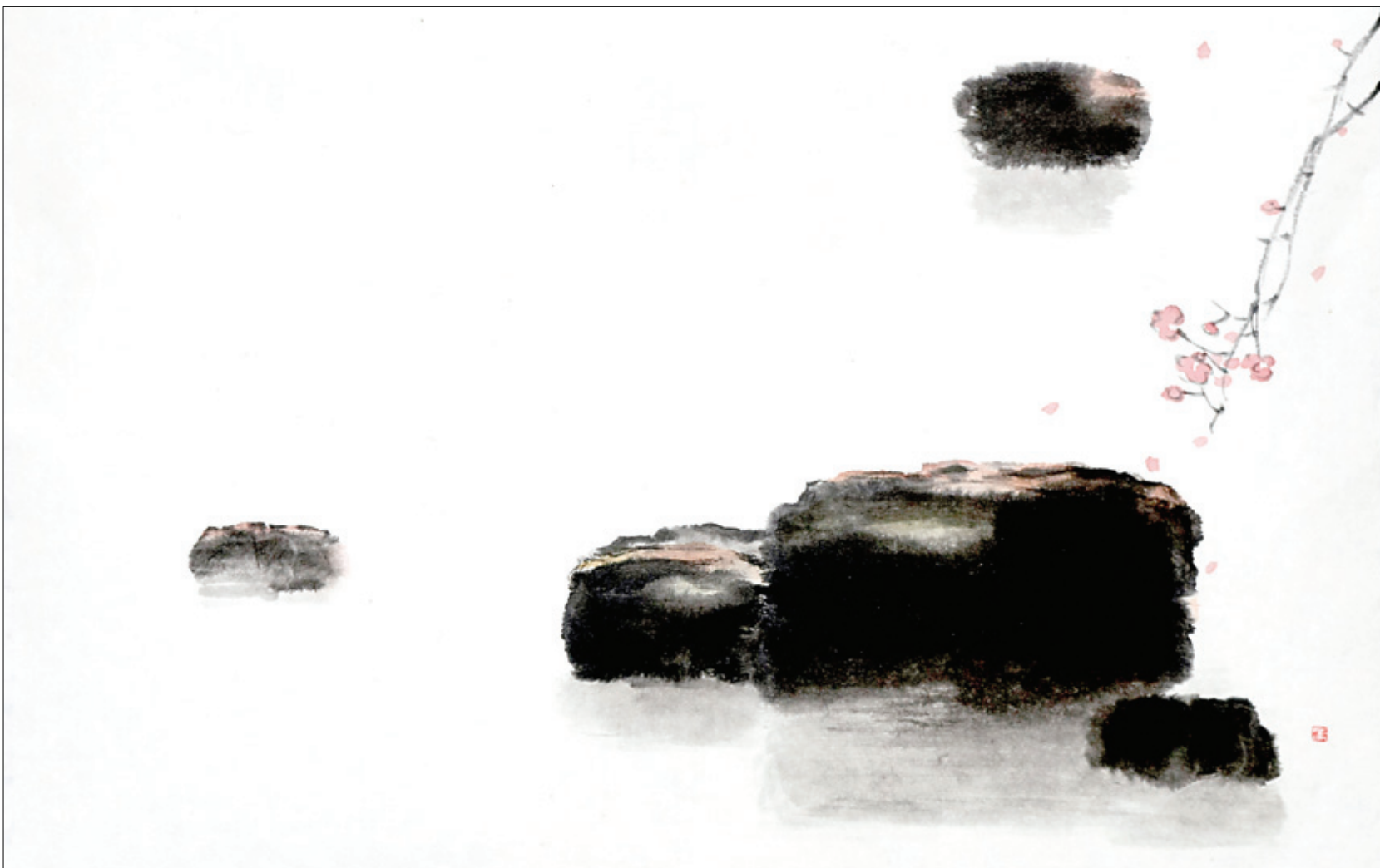
현장삼장과 가장 관련이 있는 곳은 자은사(慈恩寺)다. 특히 자은사는 일명 대안탑이라고 불리는 자은사탑이 있어, 현장을 상징하는 장소이다. 원래는 장안성내 진장방(晉昌坊)의 동쪽에 해당하는데 648년에 처음 건립됐다. 자은사탑은 현장이 인도에서 가져온 불경을 보관하기 위해서 세웠다. 현재의 탑은 정방형 10층이지만, 축전무후 때는 7층이었다고 한다. 당시 유물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은 탑뿐이고, 나머지는 최근에 복원된 것들이다. 본전의 뒤편에 대안탑이 있고, 지금은 대안탑의 뒤편에 현장기념관이 세워져 있다. 이곳은 현장이 귀국한 후 역경원으로 사용됐던 곳이며, 그에 의해 새로 이룩된 유식학과인 법상종(法相宗)의 본산이기도 하다.

인도의 불교를 동아시아의 불교로 바꾸어 놓은 두 사람의 흔적은 오늘날 장안의 땅에 전한다. 바로 이러한 동아시아인들의 마음에 다가갈 수 있는 길은 불교경전에 대한 이해로부터 시작됐다고 할 수 있다.



동국대 불교사회문화연구원 전임연구원

### 김양수의 선화(禪畫) 읽기



#### 바람 곁에 꽃이 피니

섬진강변에 매화꽃들이 피고 있습니다. 물과 바람과 햇살과 꽃들이 만들어 낸 아름다운 풍경에 눈이 부십니다. 함께 나눌 때 더욱 아름답습니다.



한국화가(동국대 미술학부 겸임교수)

#### 한국의 선시감상④ 조선 설잠 스님의 '대언(大言)'

### 돌아와 인간세상 좁다 멋대로 비웃노니

碧海投竿釣巨龜 (벽해투간조거우)  
乾坤日月手中輶 (건곤일월수중도)  
指揮天外凌雲鶴 (지휘천외능운곡)  
掌擲山東蓋世豪 (장적산동개세호)  
撈盡三千塵佛界 (잡진삼천진불계)  
吞窮萬里怒鯨溝 (탄궁만리노경도)  
歸來浪笑人寰窄 (귀래낭소인환착)  
八白中州只一毛 (팔백중주지일모)

푸른 바다에 낚싯대 던져 큰 자라를 낚고 하늘과 땅, 해와 달을 손안에 감추었다. 하늘높이 구름 넘는 고니를 지휘하고 산동의 세사 뒤덮던 호걸들을 손으로 쳐버렸네. 삼천의 중생계와 부처 세계 다 놀려 버리고 만리의 세찬 큰 파도 다 삼켜버렸네. 돌아와 인간세상 좁다 멋대로 비웃노니 넓은 천하 다만 한 터럭안일 뿐이라고.

설잠(雪岑; 1435~1493) 스님은 서울의 무신(武臣) 가문 출신이다. 스님은 어려서부터 총명해 촉망받던 신동이었다. 21세 되던 해 스님은 삼각산 중흥

사에서 독서에 열중하던 중 세조의 단종 폐위 사건을 접하고 3일 동안 문을 걸어 잠그고 고뇌하다가 궁궐을 향해 통곡하고는 책을 불사르고 스스로 삭발염의 한 이후 때로는 승려로, 때로는 현실에 복귀

하는 삶을 살았다. 스님은 법화(法華)·화엄(華嚴) 사상을 선사상과 회통시키려 했다.

이 시는 의상 조사의 법성계(法性偈) 가운데 바로 “한 먼저 안에 모든 지방세계를 다 머금고 있다[一微塵中含時方]”는 화엄의 사사무에법계관(事事無礙法界觀)을 노래한 것이다. 시의 분위기 전체가 ‘큰소리’라는 제목에 어울리는 호호탕탕한 시어들로 꾸러져 있어 설잠 스님의 걸림 없는 선(禪)의 세계를 잘 보여준다. 이 시의 묘미는 그토록 호방한 기운이 ‘한 터럭[一毛]’으로 갈무리 되고 있음에도 그 세(勢)가 결코 줄어들지 않았다는 것이다.

만약 이 시의 낙처(落處)를 그대로 느낄 수 있다면 지금 형상과 언어가 주는 고통에서 허덕이고 있는 자신의 존재가 새삼 분명해질 것이다.



원법 스님(성균관대 문학박사)

天氣福

화제의 신간

## 백초스님의 다라니방편부 신묘부주밀법총해

귀신이 붙었든, 조상이 탈이 났든, 인간에게 그 어떤 고통을 안겨주는 부정하고 사악한 기운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속히 제거해야만 뜻대로 생활할 수가 있고, 또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에 누구나 그러하기를 원한다. 하지만 요즘 귀신이나 잡귀들은 예전의 방식대로 부적이나 비방법을 쓰면 잘 내쳐지지 않는다. 귀신도 피가 많아지고 약삭빠르게 간악해졌기 때문에 좀 더 강력한 신력과 벽사 방편법으로 다루어야만 확실하게 퇴치할 수 있다.

이 책에 소개된 밀법총해는 티베트불교와 일본·중국·한국의 불교와 무교에서 비밀리 사용하는 진언과 부적을 총집결하여 만든 방편부의 총서이다. 구전으로만 전해지던 양법과 벽사법과 퇴마법 등을 최대한 수집해서 기록하였고, 또 일반 부적으로만 처방이 어려웠던 부분을 강력한 神力을 합일시켜 소원하는 일들을 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방법론까지 상세히 설명되어 있다.

**일반적인 부적책이 아닙니다!**  
옛날부터 구전으로만 전해지던 남이 알려주지 않는 비법이라는 방편법을 방편물과 방편을 하는 법들을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著者 白超 백초스님

특수양장본 / 타블로이드판 257×364/ 536쪽/ 정가 380,000원

금강주술방편연구원  
02)6015-6332/010-2002-6332

입금계좌 (예금주: 임현주)  
농협 023-02-500940  
신한 010-6413-4443